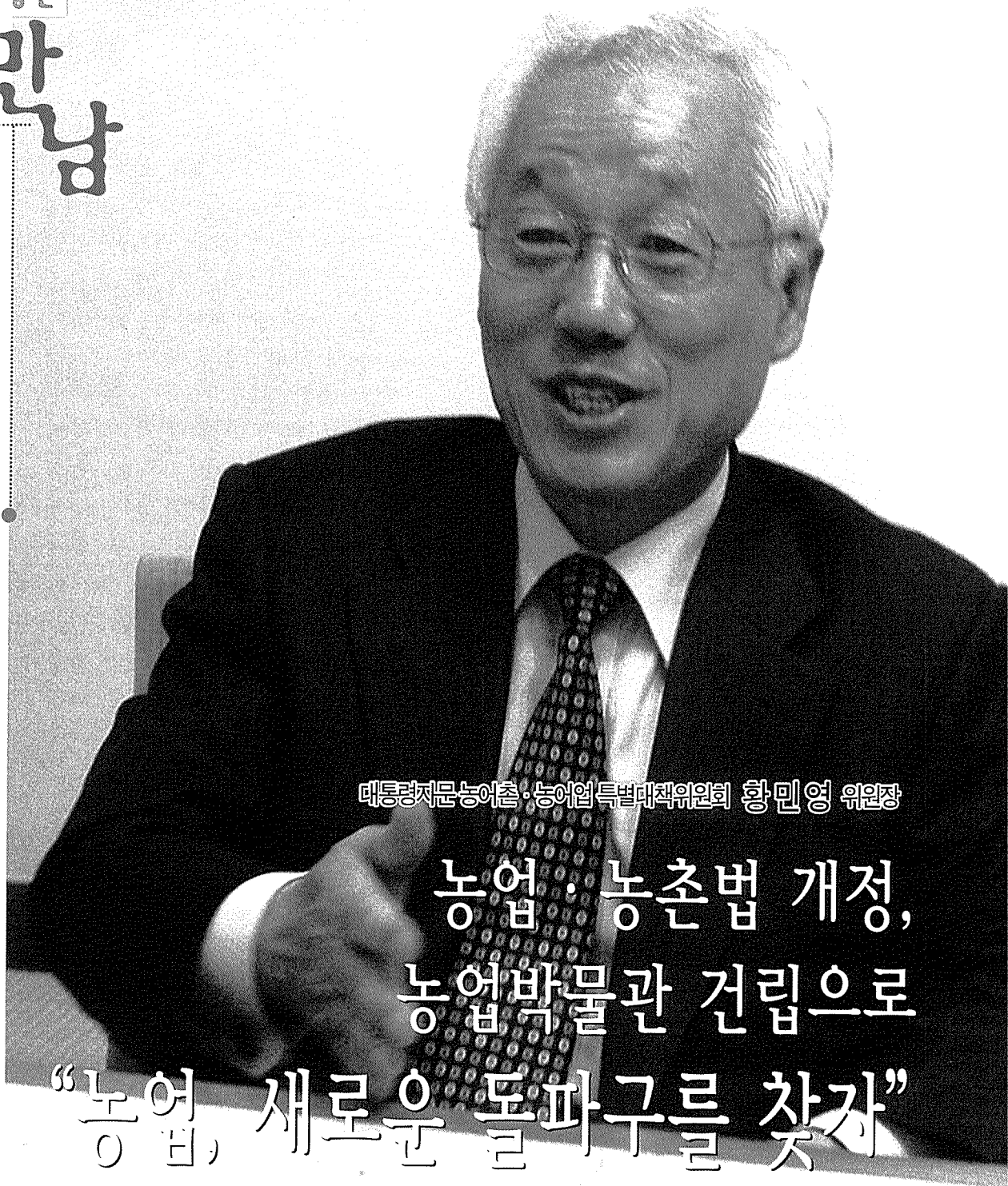


▶▶▶

만남



대통령지문농어촌·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 황민영 위원장

농업·농촌법 개정,
농업박물관 건립으로

“농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

>>> [대담 _ 유동준 발행인 겸 편집인(사단법인 한국단미사료협회장)]

>>> [정리 _ 오세진 기자]



△ 대통령자문 농어촌·농어업 특별대책위원회 황민영 위원장

'농업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대통령자문 농어촌·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 황민영 위원장.

황 위원장은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 독일 문스터대학교 경제학부를 수료한 뒤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 (주)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 사장, (주)한국농수산물종합포럼 상임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등 농어업 관련 실무 현장과 연구소, 언론사 등을 두루 거쳤기에 한국 농어업의 실정을 꿰뚫어 보기로 정평이 나있다.

2002년 1월 농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3년 한시 기구로 출범한 농어업특위가 관련법 개정으로 활동기한이 2007년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황 위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농어업인들의 기대 속에 제2기 위원회의 운영을 맡아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6월 공식적인 한미 FTA 협상 개시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재개 움직임 등 농·축산 업계에 또 한번의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피드저널 유동준 발행인 겸 편집인은 5월25일 황 위원장을 만나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과 농어축산업 발전'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유동준 : 농업계에 큰 업적을 쌓은 황 위원장이 농어업 특위의 수장을 맡아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대외 무역협상과 농어업 대책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기존 언론사 및 연구소 등에서 농업정책 등에 관해 감시·비판할 때와 직접 총체적인 농업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지금과는 관점과 견해 등이 달라지셨을 법도 한데 어떠한가.

농촌 사랑은 이념

황민영 : 전과 변함없이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다. 젊었을 때부터 '입장'을 중시해 왔다. 나의 '입장'은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다. 이는 나의 사상이고 이념이며 생활 자체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내 삶을 송두리째 버리는 것과 같다.

유동준 : 농업에 대한 애정이 변치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한다. 농어업 특위위원장으로 1년여간 활동하며 느꼈던 점 및 애로사항은.

황민영 : 농어업특위는 농어업 정책의 방향 제시 및 점검과 평가, 사회적 통합이라는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일단 농어업 정책 제시 등은 농림부의 농업 농촌기본법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기에 농어업 특위 자체의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느냐 봉오리 째 남아 있느냐는 사회 전체의 과제라 생각한다. 농민들이 개별적 농민이 아니라 조직화된 농민, 방향을 갖고 서로 인정하며 역사적 진보를 향해 나가는 성숙이 있어야 한다. 정치권에 대한 요구도 단순한 '시혜'가 아닌 '힘'과 '영향력'을 지니고 당당한 목소리를 내도록 농업계와 농민들의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

유동준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1999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난해 6월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의 이유와 방향, 완료 시점 등에 대해 설명해 달라.

기본법 명칭에 '식품' 포함

황민영 : DDA·FTA 협상의 진전으로 시장 개방이 가속화 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농촌의 고령화, 저출산, 인구 감소 등 농업이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는 등 제정 당시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개정방향은 우선 안전한 국민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시됨에 따라 기본법에 명칭에 '식품'을 포함해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현행 농정심의회의 기능 및 조직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에 따라 '통상 및 대외협력'에 대한 절을 신설, 농업특성에 따른 대외통상원칙 등을 규정할 것이다.

농업인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품목별, 열량기준 자급률 등의 목표치를 명시할 것이며, 농촌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과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정책 관련 조항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 본지 유동준 발행인 겸 편집인

이번 개정은 단순한 일부 조항의 수정이 아니라 법을 새로 만드는 수준으로 그 내용과 체계를 크게 손질하고 있다.

농어업특위는 개정방향 논의를 가급적 상반기중 완료해 정부에 통보하고,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중에 개정안을 상정,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등준 : 기본법 명칭에 '식품'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황민영 :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 농업이며 농촌에서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생산에서부터 유통과정 및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 식품은 농업·농촌의 핵심분야라 할 수 있다.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농업관련 기본법에 식품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와 농업환경이 유사한 일본도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농업인만이 아닌 전국민을 위한 법으로서, 기본법의 명칭에 식품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유등준 : 한미 FTA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워싱턴에서 저지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위원장으로서 한미 FTA를 바라보는 입장과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해 달라.

황민영 : 경제도 살아 움직이는 식물과 같다. 어찌

보면 먹느냐 먹히느냐의 치열한 시스템 속에 놓여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독자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 지킬 것은 지키고 경쟁할 것은 해야 한다. 현재의 구조로는 한국농업이 한국경제를 뒷받침 해주기는 취약하다. 하지만 협상 이전에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이끌어 내어야 하는데 대국민 홍보 부족 등으로 미진했던 점이 있다고 본다.

유등준 : 이러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로 대변되는 통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우리 농·어촌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농·어촌이 우선적으로 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FTA는 또 다른 시작

황민영 : FTA가 체결된다고 해서 무엇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FTA의 주체는 농업인이다. 농업인이 교육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인식하고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유통체계 강화 등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농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농민으로서 자세와 도덕성 등에 있어서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

유등준 : 농업살리기의 일환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하

는 '농업박물관' 건립에 대해 평소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조대왕의 천도(遷都)의 의지와 관련해 마련된 현 수원 농촌진흥청 자리에 박물관이 들어섰으면 하는 기대도 있는데, 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비전 및 추진 계획은.

복합적 기능 갖춘 농업박물관 건립 추진

황민영 : 농업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에 농업박물관 한 개도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박물관이라기보다 농촌을 주 테마로 한 전시기능, 교육기능, 유스호스텔, 수출상담 창구 등 복합적 기능을 담당하는 Complex가 건립됐으면 한다.

이 일 만큼은 농림부 박홍수 장관이 건립 추진 검토를 지시하는 등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박물관 건립을 통해 개방화로 위축된 농업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통합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소는 통일 후와 중국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서울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 수원의 서울농대 이전 및 진흥청 이전 계획 확정으로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안산 시화호 쪽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유동준 : 오랜 농업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농업·농촌 관련 역사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반가

운 얘기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농어업과 축산분야는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며 특히 축산분야의 모태는 사료산업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단미사료 공급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황민영 : 단미사료협회가 원료의 원활한 조달 등 사료산업의 선진화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한다. 국내의 여건변화에 대응해 우리 축산업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품질·안전축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유해잔류물질 걱정없는 안전한 사료, 품질고급화를 지향해야 사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유동준 : 제안해 준 것을 바탕으로 한국단미사료산업이 날로 번창하길 바란다. 인터뷰에 응해줘 고맙다. ㉔

